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9월 4일 월요일 (음 7월 14일)

제188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전북 수출 재도약 꾀한다

도, 기업 12개사 등과 간담회서 대응방안 논의 업체들, 상호협력·정보교환 필요성에 공감대

전북도는 지난 1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진흥 정무부지사 주재로 수출활성화와 재도약을 위한 수출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진흥 정무부지사가 강조한 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협의하고 수출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도내 주요 수출 기업 12개사 대표와 수출 지원기관장 등이 한자리에 모여 기업 애로사항을 듣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수출기업들은 그동안 추진했던 해

외진출 사례를 공유하고 향후 전략에 대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무역협회전북지역본부 김영준 본부장은 최근 수출동향 보고를 통해 2012년 이후 처음으로 도내 수출이 연속 4개월째 상승하고 있으나 대기업 위주의 수출구조로 크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내수 위주의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특정한 중소기업들이 전북 수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수출 기업 간 상호협력과 정보교환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시책마련을 요구했다.
진흥 정무부지사는 "수출의 최전선에 있는 기업현장의 소리를 귀담아 들을 수 있도록 소통채널을 확대하고 수출기업의 다양한 의견을 수출지원기관들이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미국과 중국에 편중된 수출 구조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수출시장을 확보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해외 신시장 개척을 지원해 100억불 수출 재도약의 목표도 이룰 수 있도록 자체 차원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 대응' 도 정보통신 연합회 개최

전북도는 급변하는 정보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전북도 정보통신 연합회'를 지난달 31일부터 2일간 정읍시 신대인읍 천단포도마을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도 및 시군 정보통신분야 공무원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었다.
정보통신 연합회는 도내 정보통신 담당 공무원들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등 산,학,연 주요 전문가와 함께 정보통신 시책 및 신기술 발전 동향 등의 정보 공유와 신기술을 적용한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매년 시·군별로 순회 개최한다.
올해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지자체 대응전략을 위한 토론회가 전주대학교 한동승 교수 주재로 참석자들과 격의없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토론회에서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 박영민 책임연구관이 '제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지방 정부의 대응'이란 발제로 시작했다.
행사장 밖에서는 VR 등 우수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제품 전시회도 병행했다.
또한, 자치단체 정보통신공무원의 정보통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는 김제시의 특이차량 실시간 알람이 시스템이 최우수상을 전주시의 운수사업관리시스템 전지민원 서비스가 우수상을 차지하는 등 그동안 갖고 있던 실력을 발휘하는 기회도 가졌다. /김진성 기자

JB 지주 회장직·광주은행장 분리

JB금융그룹, 조직체계 정비 통해 지주회사 기능 강화

JB금융그룹은 지주 회장직과 광주은행장을 분리하는 등 조직체계 정비를 통해 지주회사의 기능을 강화시킨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동안은 성장 중심의 외형 확대와 조직 안정화를 위해 김한 지주 회장이 광주은행장을 함께 맡아 왔다.
JB금융지주와 광주은행은 지난 달 23일과 28일 각각 임원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송종욱 광주은행 부행장을 차기 광주은행장 후보로 추천기로 결정했다.
JB금융그룹은 앞으로 지주회사 중심의 그룹사간 시너지 제고와 창출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또 지주 회장과 은행장 분리를 계기로 미래 사업에 대한 지주회사의 역할 및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체계를 정비한다.
특히 그룹사의 사업별 경쟁력을 강화하고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등

이자수익에 편중된 수익구조에서 벗어나 비이자 수익원 창출 등을 추진한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새로운 금융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그룹 디지털화 전략 수행과 지역적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한 해외사업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JB우리 캐피탈 인수를 시작으로 광주는 행, JB자산운용의 계열회사 편입을 통해 그룹의 외형을 확장해 왔다.
전북은행과 광주은행의 역외 진출과 더불어 캄보디아, 베트남, 미얀마 등 해외진출을 통한 포트폴리오 다변화에도 성공했다.
JB금융지주 설립 당시 15조원에 불과한 그룹의 자산규모는 최근 50조원 수준의 종합금융그룹으로 성장했다. /뉴시스



GM작물 생산 추진 중단
지난 1일 농진청총청이 시민단체와 GM작물 생산 추진을 중단하는 협약을 맺었다. 사진은 농진청 황규석 연구정책국장(왼쪽)과 반GMO전북도민행동 이세우 대표가 협약 뒤 악수하는 모습이다. <관련기사 6면>

전주시, 내년도 정부 예산 2458억원 반영

중점관리대상 70개 사업에

맞춤형훈련센터 등 12개 신규사업에도 반영

일자리 창출 등 주요사업도 사업비 증액으로 예산규모 ↑

2018년도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가운데, 전주시가 중점 관리해온 중점관리대상 70개 사업, 2,458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동·노인복지수당 등을 제외한 정부 사업예산으로, 전년도 부처 반영액인 2,204억원보다 254억원(11.5%)이 증액된 규모다. 시는 지난해 국비확보 총액인 5,253억원을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시는 일자리 및 복지중심의 새 정부 정책과제 재원 마련을 위해 SOC 예산을 삭감하는 정부의 지출 구조조정 속에서도 △새만금~전주 고속도로(625억) △일자리 창출(67억) △4차 산업혁명 관련사업(62.5억) 등 주요사업들의 사업비가 증액돼 확보 예산 규모가 늘어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시는 △전주 맞춤형훈련센터(17억) △전주교도소

이전사업(13억)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구축(15억) △가상현실 드림스퀘어 조성 프로젝트(50억) 등 12개 신규사업을 정부예산안에 반영시켰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중인 △전주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728억) △전주 탄소산업단지 진입도로 건설(15억) △소리창조 클러스터(40억) 등 예타 통과에 따른 국비 증액과 아동수당 및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관련 예산 등의 증액에 따라 국비 확보액이 전년도에 비해 대폭 증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그동안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도시기반 시설은 물론 생태·문화·관광도시 조성, 일자리 창출, 탄소산업, 4차산업혁명 관련사업 등 전주 미래의 성장동력을 이끌 116개 지역발전 주요현안사업을 2018년 국가예산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국가예산 확보 활동을 펼쳐왔다.
시는 이번 정부예산안에 미반영되었거나 감액된 주요사업들에 대해서도 국회의 예산 심의일정에 맞춰 단계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지역정치권과의 공조를 통해 국가예산 추가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국회에 제출됐으며, 10~11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2일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김민근 기자

전주시, 공유경제 활성화 토론회

전주시가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정보와 공간, 재능, 지식, 물건 등을 함께 나눠 쓰며생활비를 반으로 줄이는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시는 지난 1일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특히 특강에 나선 서문산성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주 원도심에 IT기술을 접목해 무료 WiFi존을 만들어 통신생활비를 반값으로 줄이는 계획에 대해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달부터 먹거리와 의류, 교통·통신 등을 공유해 생활비를 줄여온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반값 생활비를 위한 아이디어가 있는 시민은 6일까지 전주시 홈페이지(www.jonju.go.kr)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제안설명서를 이메일(jrc@jrc.or.kr)로 제출하면 된다. /김민근 기자

매일 INDEX
4면 - 대한민국 독서대전 성료
9면 - 무주 반딧불축제 폐막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